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전진식
〈한겨레21 기자〉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가구(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이들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라고 합니다. 이른바 빈곤층은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면제받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체납액 독촉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징수는 집요하다 못해 가혹하기 한 것처럼 보입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진료비나 입원비 등 병·의원에 지급하는 돈 대부분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가산금도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의 3%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도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병·의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에 지급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재산가압류나 통장 거래까지도 중지시킵니다.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분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독촉하는 고지서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규정이 너무도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생에게도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독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

고 있는 10살 이하 미성년자가 1만2686세대에 이릅니다. 11~20살의 경우도 3만8407세대입니다. 20살 이하에 해당하는 5만세대 정도가 건강보험료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경북의 한 아동보호시설(그룹홈)을 취재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머무는 영희(가명)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2년 전 이 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희에게 2년간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부모와 분리된 뒤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로 신고했는데,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까지 7개월간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아이에게, 더구나 부모의 학대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어린이에게 건강보험료를 끝까지 받아내려는 제도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에는 영희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115만여원을 내라는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영희를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공단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시스템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에만 매달리는 탓에 빈곤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나아가 빈곤을 대물림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영희의 사례를 들어,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도 모든 국민이 건강할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건강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차라리 연좌제가 아닌가 싶다. 은행보다 더 무섭다. 이걸 말이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체납 독촉을 위한 조직 같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을 하루빨리 막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거친 논리만을 앞세우며 제도 개선을 미루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깊어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